

老後適應에 관한 研究

—生活滿足度 및 家族의 交流度를 中心으로—

A study on the adjustment problems of the aged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徐 炳 淑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College of Home Economics
Han Yang University
Prof; Byong Sook Seo*

<目 次>

I. 序 論	IV. 結果 및 解釋
II. 理論的 背景	V. 結論 및 提言
III. 研究方法	引用 및 參考文獻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empirically the living status of the elderly in Korea by finding out the problems of it in the family and by clarifying the influences of the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and the values on the adjustment of the aged.

To carry out the aim of this study, the causes and the patterns of the problems for the aged had been found out through the review of literature. Based on them the questionnaire was prepared including the questions of the values,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as well as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their lives and the extent of life interchange. The former variables were taken as independent and the latter were taken as dependent variables, so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could be exemplified.

The 400 aged over 60 living in Seoul and the other cities were selected through the purposive sampling and interviewed. The answers of the 376 respondents, 94% of the sample,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The following results have been found out through the various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frequency distribution, chi-square 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nce and cluster analysis. At first, the results from the examination of the frequency distribution regarding the living status of the aged are; i) sixteen percent of the respondents living with their married offspring were receiving economical support, though they pointed out the

*本稿는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을 部分的으로 要約 발췌한 것이며 漢陽大學校 校內研究助成費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problems of the extended family are the inconveniences with their children (60%) and simpleness (20%) of their lives. It seems that the aged in Korea are poor and have negative opinion on the relationship with their offspring even if they live in the same house.

Secondly, it has been found out that the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especially such as sex, occupation, residence, education, level, living ability and the family type, play an important role not only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their lives but also on the extent of interchange of their lives. However, the variables such as religion and whether the spouse is alive or not do not play an important role.

Thirdly, the reported main reasons of their delightness were healthy life (1.87%), the well-being of their offspring (2.08%), the spouse's long life (3.38%), religious activity (5.05%), the hobby activity (4.31%) and the participation in the social activity (5.05%). While, they mainly concern about the illness (1.98%), offspring (2.00%), economic difficulties (3.39%), inharmonious home (3.81%) and the despicable treatment (3.81%).

The respondents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they are dependent and independent, using cluster analysis. Health, social activity, offspring, religion, couple's long life among the factors which lead them to be delighted were turned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0.01 significance level between the two groups. As far as their worrisome matters are concerned, health and economic difficulti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Fourthly, regarding the life interchange, it has been proved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economic and the emotional satisfaction, help for ordinary life, status in the family, subjective and objective relationship with offspring, but not in economic dependency and the activity status.

Fifthly, it has been noted that there is a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life's satisfaction and the extent of life interchang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mentioned above, it could be concluded that; i) The majority of the aged in Korea are not economically active, and thus they live with their married offspring even if they have a negative opinion on the subjective relationship with them. This can be pointed out as the main problem of the aged and thus it needs to be studied further. ii) The environmental variables such as age, sex education level, family type and occupation (which can not be changed by their effort) turned out to give an important effect on the extent of the life interchange among the aged.

iii) The respondents who are identified as independent group have a higher degree of life satisfaction and family status than the group identified as dependent. Thus, it can be inferred that it is possible for them to adjust their life by making an effort to modify themselves. iv) The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extent of life interchange and the degree of life satisfaction indicates that the elderly themselves can adjust in order to obtain the higher degree of life satisfaction.

Therefore,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derived from this study. First of all, the aged should try to be psychologically independent. Second, they need to control themselves in

order to achieve self-assurance. Third, the community have to prepare a program of self-development for the aged. Fourth, the social welfare policy that can solve the problem of illness and poverty of the elderly should be introduced, so that their minimum requirements can be satisfied.

I. 序 論

과거 韓國社會에서는 老人들의 地位와 役割이 확고하고 社會規範 또한 孝와 敬老意識이 투철하여 老人들의 老後문제는 야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社會가 급속히 現代化됨에 따라 老人의 地位가 저하되고 役割이 상실되는 상황들이 여러가지로 나타나게 되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료기술의 발달과 영양보급 및 환경개선으로 人間壽命이 연장됨에 따라 高齡化社會를 촉진시키고, 家庭에서나 社會에서 世代간의 가치관의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技術이 발달함에 따라 老人들이 體得하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은 새로운 직종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老人은 퇴직을 하게 되고, 퇴직은 老人의 所得을 상실 또는 감소시키게 되었다. 또한 都市化 産業化에 따른 農村人口의 이동은 老父母와 成人子女와의 居住地域을 分離시키고 父母子女 世代間的 相互關係를 원활하지 못하게 만들어 老父母를 고독하게 하고 있다.

현재까지 老人扶養對策은 老人의 家族扶養을 붕괴시키고 싶지 않은 배려하에 家族扶養 특히 同居의 長點만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대다수의 老人들이 子女의 同居扶養을 받고는 있으나 자신의 所得保障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老父母측에서 成人子女의 扶養상태에 별로 만족하지 못하며 특히 長男夫婦와 동거하는 경우에 老人의 만족도가 낮다는 연구결과(김대현 1981)는 동거부양의 경우 경제적 부담과 人間關係에서 오는 갈등 및 적응에 대한 課題등 규명되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韓國에서 老人問題를 社會問題로 인식하고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초부터이다. 그러나 老人問題 研究에 있어서 發生原因부터 對策에 이르기까지 老人을 둘러싸고 있는 家庭이나 社會에 그 책임소재를 돌리는 研究가 대부분이고 老人自身の 책임과 과업

에 대한 論議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老人自身을 위해서도 스스로 책임있고 독립적으로 生活하는 태도를 갖는 것을 제언하고 있는 論議는(최성재 1988) 앞으로 老人問題가 國家的 社會的 對應策外에 老人의 個人的次元의 문제규명도 必要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외국의 연구에서도 老人自身의 태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文化的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研究結果를 한국의 老人生活態度에 適用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겠으나 한국사회도 점차 老年期가 장기화됨에 따라 老後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가는 추세임으로 老後適應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고도 의의있는 課題라 思料된다.

II. 理論的背景

本節에서는 老後の 適應生活에 관련이 많다고 考察된 老人의 生活滿足, 老人의 相互依存관계, 適應을 中心으로 論議하고자 한다.

1. 生活滿足

만족이란 이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이 物質的인든 精神的인든간에 人間이 心理的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으로서 일정한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한 개인의 주관적 感情상태를 말한다(W.R. Burr, 1970). 老人의 生活滿足 개념에 대하여 Graney (1975)는 生活滿足의 主體인 老人이 갖는 生活全般에 대한 幸福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 또는 態度라 定義하였고, Lawton(1972)은 老人의 生活에 대한 適應 또는 만족을 士氣(moral)라는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즉 士氣는 多次元的인 概念으로 사기가 높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한 환경 속에서 자신이 차지할 자리가 있다는 느낌, 변경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態度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Kalish(1975)는 老年期 以前の 生活도 계속 유지하면서 주어진 生活을 기꺼이 수용하고 이에 적

응하며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바로 생활만족이며 이는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價値觀, 自我概念 등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概念이라 말하고 있다. 老人의 生活滿足에 대한 概念은 기대와 보상, 기쁨, 성취감, 욕구충족, 긍정적 가치, 福祉, 幸福, 士氣의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相互依存

老人은 心身機能의 쇠퇴로 인하여 자유로운 환경 통제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자연히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고, 유아나 病者와 같이 전체사회의 弱者의 범주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他人에 대한 依存, 특히 家族이나 친족에 대한 依存性이 포함된다. 老年學 分野에서는 老年期에 대두되는 各種 生活領域에서 발생하는 依存性을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老人들이 社會에서 제공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로 간주한다. 그러나 실제로 老人은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제공하기도 한다.

다음의 주고 받음의 pattern은 老人世代로부터 젊은세대로 하향하는 도움과 世代間的 相互의으로 흐르는 도움이 있는데 이러한 相互作用은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하층의 경우에는 老父母는 成人子女로부터 물질적인 원조를 받고 그 댓가로 「아이돌보기」, 「助言」같은 Service를 주고, 상층의 경우에는 부모세대가 금전과 物質을 상속의 형식으로 자녀에게 주고 자녀는 부모를 방문하고 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相互扶助의 내용은 다양하여 Shanas(1968)에 의하면 歐美三國의 실태조사에서는 ①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일방적인 扶助가 아니라 互惠性이 강하다. ② 방문, 간병, 家事助力, 손자녀 돌보기, 선물교환 등이 相互扶助의 주요한 내용이고 定期的인 송금과 같은 경제적인 원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opata(1978)는 美國의 한 조사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相互扶助體系를 제시하였다.

① 經濟的 扶助體系: 금전이나 의복, 식품의 증여, 집세나 의료비, 여비의 지불이나 일부원조

② Service의 扶助體系: 外出할때의 편의 제공 간병, 애보기 집수리, 家事나 구매助力, 정원이나 자동

차 손질.

③ 社會的 扶助體系: 영화관등의 동행, 방문, 위안, 점심초대, 교회참석, 여행, 가정행사나 축제일 행사 참여등

④ 情緒的 扶助體系: 親知에 대한 共有感情, 삶의 보람, 유용성, 자립, 수용, 自足, 안정 등을 느끼게 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老父母와 子女와의 관계에 있어서 經濟的인 측면에 개재가 적을 수록 情緒的인 면이 강해진다고는 하나 이러한 事例에 대하여 韓國이나 日本에서는 別居하고 있는 兩親子間的 접촉빈도는 적고 자식의 同居扶養은 經濟扶養의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適應

適應이란 對人交涉에서 야기되는 상대방측의 要求나 期待 또는 集團生活에서 경험하는 집단의 규범등에 대하여 개인이 그러한 욕구의 해법이나 발생을 조정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적인 老化를 추구하는 人間은 어떻게하여 최대의 인생만족을 누리며 生涯를 마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최대의 희망이요 과제가 된다.

歐美에서의 老年期 적응연구로서는 適應樣式의 分類, 적응양식과 社會的 政治的 要因과의 관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Reichard R.C. Atchley, R.C. Peck).

美國과 같이 高度의 產業社會에서는 老後生活에 適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人生目標을 한단계 낮추고 정신적 육체적 쇠퇴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행동범위를 줄이고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의 分量이나 責任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Anderson은 幼兒가 서서히 社會的 價値規範이나 行動方式을 익혀가는 過程을 마치 거꾸로 하듯이 人生後期에는 社會生活에서 물러나 service의 수용자가 되어간다고 했다.

이상으로 老人問題에 영향을 주는 것은 老人의 生活滿足 老人의 家族과의 相互依存관계, 老人의 適應 등 老人側의 要因에 대하여 論議하였다. 이것은 과거 老人들에게 절대적인 권위와 地位를 부여하던 시기와는 달리 老人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준비되고 조정할 수 있는 老人自身에게 適應의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論理가 되는 것이다.

III. 研究方法

1. 研究問題設定

老人의 老後適應에 대한 영향 要因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① 背景變因에 따라 老人의 生活滿足도와 生活交流度에 차이가 있는가 알아본다.

② 老人의 生活관심영역에 따라 老人의 生活滿足도와 生活交流도에 차이가 있는가 알아본다.

③ 老人의 生活滿足도와 生活交流도의 相關關係를 파악하여 老人의 適應상태를 分析한다.

2. 用語의 定義

① 老人의 適應

本 研究는 先行研究에 의하여 子女와의 主觀的인 關係가 원만하고 客觀적인 關係가 빈번하며 活動性이 많고 父母子女間에 相互交流的일수록 生活滿足도가 높고 適應이 잘되는 것으로 定義한다.

② 生活交流度

本 研究에서는 子女와의 주관적인 關係, 子女와의 客觀的인 交流關係, 經濟的인 依存度, 家事依存度, 活動性, 家族內 地位등을 綜合하여 生活交流度라 定義한다.

③ 生活관심의 영역

老人生活의 기쁨과 근심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部分을 生活관심영역이라 하였다. 즉 기쁨의 영역에는 건강, 社會活動, 취미생활, 자손이 잘되는 것, 宗教生活, 부부해로를 들고 근심영역에는 건강불편, 家庭不和, 경제적 궁핍, 부모대접 못받는 것, 子女에 대한 걱정을 포함한다.

3. 資料 수집 및 處理

① 調查期間 및 內容

에비조사는 1988年 7月 25日~7日 30日까지 6日間에 걸쳐서 서울시內에 居住하는 老人 7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내용은 背景變數 14문항 生活관심에 대한 23문항 生活滿足도에 관한 40문항 生活交流도에 대한 50문항으로 구

성하였으며 이는 本 研究의 질문항목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本 研究의 調查대상지역은 都市地域으로는 서울 잠실 중곡동, 鎭호동, 農村地域으로는 강원도 원주, 충남 공주, 부여를 選定하였다. 이들 地域은 研究의 目的에 따라 地域的條件, 社會經濟的 差異, 年齡分布등을 고려하여 選定되었으며 調查는 1988年 8月 10日 부터 8月 27日까지 18日間에 걸쳐 실시되었다.

② 調查對象

本 調查는 훈련받은 調查員들이 서울과 地方에 있는 경로회관, 종교단체, 호별방문 등을 통하여 60세 이상 老人 400명을 有意標本抽出을 하였다. 有意標本抽出은 研究者의 연구기간과 使用의 제한조건으로 인하여 채택한 것이므로 本 研究結果를 一般化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제한점으로 제시한다. 選定된 全體標本 400명중에서 부적절한 應答를 제외한 376부의 응답지를 分析資料로 확정하였다.

③ 資料分析 方法

本 研究에서 제시된 研究問題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統計技法이 使用되었다.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변수에 대한 빈도분석을 生活滿足도와 生活交流도에 대한 배경변인과의 差異分析에는 x^2 검증, t-검증, 分散分析을 실시하였으며 생활관심을 파악하기 위하여 順位平均과 生活관심을 類型化하기 위하여 叢集分析을 실시하였다. 生活交流도와 生活滿足도와의 相關關係를 分析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算出하였다.

자료통계처리는 한국과학기술원 시스템 공학 center의 SPSS package를 사용하였다.

IV. 結果 및 解釋

1. 調查對象者의 一般의 特性和 生活交流 현황

① 調查對象者의 一般의 特性 <表-1>

調查對象者의 年令別分布는 70세를 進후하여 대체적으로 正規分布를 이루고 있으며 75세 이상의 高年令층으로 갈수록 女子老人의 比率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職業別分布는 전체대상자중 職業을 가진 사람이 男子는 34%, 女子는 11.7%에 불과하였으며 직업

을 가진 경우 農畜産業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특히 前職의 경우에는 농축산업이 다수이고 전문직이 적다는 것이 특징이 된다. 學歷은 國卒이하의 低學歷者가 80.8%로 전반적으로 教育水準이 낮다. 配偶者관계는 조사대상자의 59.3%가 配偶者와 死別하여 홀로 生活하고 있었다. 특히 女子의 경우는 75.8%가 配偶者와 死別하였다. 반면에 男子는 19.4%만이 배우자와 死別하였으며 75%는 配偶者와 동거하고 있었다. 家族形態는 結婚한 長男과 同居하는 경우가 전체의 50% 정도로 比率이 높았다. 그리고 다른 아들 또는 딸夫婦와 同居하는 경우와 합하면 전체의 76%의 老人이 子女들과 동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本調査가 先行研究와 다른 경향은 女子老人이 딸夫婦와 同居하는 경우가 14.8%로 증가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老人들의 딸과의 交流가 보다 원

활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같은 딸과의 同居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子女와의 同居時 不便한 점으로는 「子女夫婦의 行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 일 없이 적적하다」 「눈치를 보아야 한다」 등으로 나타나 同居에는 規範的인 것보다 情緒的인 面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經濟的 生活能力에 있어서 66.2%가 자신의 收入으로 生活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女子老人의 경우 生活不可能한 경우가 높게 나타나 性別에 대하여 有意한 차이를 보였다. 經濟的 生活能力과 관계없이 전체의 84.2%가 子女로부터 經濟的 원조를 받고 있으며 子女의 經濟的 원조를 받지 않는 경우는 男子가 女子보다 높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調査對象者의 問題點으로는 經濟的 能力이 없는 老人의 80% 이상이 子女로부터 經濟的 원조를 받아 老後生活을 보내고 있는

<표-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빈도)			
배경변인		성 별	남	여	전체
연령 (세)	60 ~ 64		21.3	14.8	16.7
	65 ~ 69		28.7	30.0	29.6
	70 ~ 74		34.3	27.0	29.1
	75 ~ 79		12.0	17.9	16.2
	80 ~ 84		3.7	6.1	5.4
	85 이상		—	4.2	3.0
		합 계		100(108)	100(263)
현재 직업	무 직		66.0	88.3	81.9
	단순근로직		2.8	2.6	2.7
	개인사업		4.7	1.9	2.7
	농·축산업		17.9	5.3	8.9
	회사사무직		1.9	—	0.5
	전문직		4.7	—	1.3
	기 타		1.9	1.9	1.9
	합 계		100(106)	100(265)	100(376)
전직	무 직		5.4	62.6	45.7
	단순근로직		8.1	4.6	5.7
	개인사업		14.9	4.6	7.7
	농·축산업		41.9	22.8	28.5
	회사사무직		13.5	1.8	4.1
	전문직		10.8	3.5	4.5
	기 타		5.4	—	4.1
	합 계		100(74)	100(175)	100(249)

학력	무 학	32.4	50.6	45.3
	서 당	6.5	6.5	6.5
	국 졸	30.6	28.4	29.0
	중 졸	8.3	5.4	6.2
	고 졸	12.0	7.7	8.9
	전문대졸	3.7	0.4	1.4
	대 학 졸	6.5	1.1	2.7
	합 계	100(108)	100(261)	100(369)
배우자 관계	동 거	75.0	22.1	37.7
	별 거	5.6	1.6	2.7
	이 혼	—	0.5	0.3
	사 별	19.4	75.8	59.3
	합 계	100(108)	100(258)	100(366)
가족 동거 형태	노인단독	1.9	7.6	5.9
	노 부 부	24.3	4.6	10.3
	기혼큰아들 부부	44.9	51.3	49.5
	기혼다른아들 부부	13.1	15.6	14.9
	기혼 딸 부부	3.7	14.8	11.6
	미혼자녀	10.3	4.2	5.9
	기 타	1.9	1.9	1.9
	합 계	100(107)	100(263)	100(370)
동거시 불편한 점	음식이 맞지 않는다	4.9	8.0	7.2
	부모 말이 힘이 없다	9.8	6.9	7.6
	자녀부부 행동 이해가 곤란하다	8.2	23.9	20.1
	눈치를 봐야 한다	14.8	12.8	13.3
	적적하다	21.3	22.3	22.1
	노인에게 맞지 않는 생활이다	—	5.9	4.4
	애기 상대가 없다	14.8	6.9	8.8
	기 타	26.2	13.3	16.5
	합 계	100(61)	100(188)	100(249)
생활 능력	생활 가능	44.4	29.0	33.8
	생활 불가능	56.6	71.0	66.2
	합 계	100(108)	100(241)	100(349)
경제적 원조	정기적 — 일정액	28.3	32.1	31.0
	정기적 — 비일정액	4.7	6.9	6.3
	때때로 받는다	34.9	47.7	44.0
	전혀 받지 않는다	25.5	11.8	15.8
	기 타	6.6	1.5	3.0
	합 계	100(106)	100(262)	100(368)

며 대부분子女와同居하고 있는데,同居扶養을 받고 있으면서도 60% 정도가子女와의 관계를否定的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② 調查對象者의 生活交流現況

a) 經濟的 依存度 <表-2>

子女에게 生活費 혹은 용돈 명목으로 經濟的인 도

움을 받는 정도는 매우 높아 定期的으로 一定額을 받거나(31.0%) 定期的은 아니나 때때로 받고 있다(43.9%)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혀 받지 않는 경우는 15.9%로 매우 낮은 比率이었다.

b) 家事依存度 <表-3>

家事영역에서는 「식사준비」 「집안청소」 「손자녀 돌보기」 「밭일 혹은 마당청소」 「빨래」는 도움을 받는

<표-2> 경제적 의존도

항 목	빈 도	비율(%)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받고 있다.	115	31.0
정기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받는다.	23	6.2
정기적이진 않으나 때때로 받고 있다.	163	43.9
전혀 받고 있지 않다.	59	15.9
기 타	11	3.0
계	371	100

영역이 되는데 父母와 子女間에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가 비슷한 比重을 이루고 있으며 「옷갈아 입기」는 80% 정도가, 「잠자리 준비와 정리」는 48% 정도가 도움을 받지 않고 自立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 活動性 <表-4>

「독서」나 「신문보는 것」 보다 「가족과의 대화」나 「친구를 만나는 것」 「종교적인 활동」 등에 대하여 응답하는 老人이 많은 것으로 보아 老人들은 홀로 갖는 時間보다 타인과의 만남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d) 家族內的地位 <表-5>

부모이기 때문에 소중히 대해주고(80% 정도) 중요한 결정을 할때 의논을 한다(65% 정도)고 응답한 사람이 비교적 많음에도 불구하고 「家族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2%가 되는 것으로 보아 老人들의 고독과 소외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표-3> 가사의존

	거의 매일 도와준다	가끔씩 도와준다	도움을 주거나 받지않는다	가끔씩 도움을 받는다	거의 매일 도움을 받는다	계
식사준비	24.9(93)	21.9(82)	26.2(98)	4.5(17)	22.5(84)	100(374)
설거지	16.7(62)	28.2(105)	31.2(116)	2.4(9)	21.5(60)	100(372)
바느질, 옷고치는 것	11.1(41)	27.2(101)	37.5(139)	6.7(25)	17.5(65)	100(371)
시장보기	10.8(40)	19.2(71)	38.1(141)	5.1(19)	26.8(99)	100(370)
집안청소	18.2(68)	37.0(138)	20.6(77)	4.6(17)	19.6(73)	100(373)
손자녀돌보기	21.2(75)	37.6(133)	31.4(111)	2.0(7)	7.9(28)	100(354)
밭일 혹은 마당청소	22.9(80)	25.8(90)	34.4(120)	4.3(15)	12.6(44)	100(349)
옷갈아입기	5.6(20)	3.9(14)	79.4(286)	6.9(25)	4.2(15)	100(360)
빨래	13.7(51)	20.8(77)	36.1(134)	7.3(27)	22.1(82)	100(371)
잠자리준비 및 정리	11.7(43)	11.1(41)	47.7(176)	14.9(55)	14.6(54)	100(369)

<표-4> 활동성

	매우 자주 한다	자주하는 편이다	가끔씩 한다	별로하지 않는다	전혀하지 않는다	계
신문보는 것	18.9(70)	9.7(36)	10.0(37)	12.7(47)	48.8(181)	100(371)
가벼운 운동	11.5(43)	16.1(60)	24.1(90)	21.2(79)	27.1(101)	100(373)
독서	7.5(28)	13.4(50)	19.6(73)	13.4(50)	46.1(172)	100(373)
가족과의 대화	19.5(72)	40.4(149)	26.6(98)	8.4(31)	5.1(19)	100(369)
친구를 만나는 것	29.0(108)	25.7(96)	27.9(104)	11.8(44)	5.6(21)	100(373)
교회(성당, 절)에 가는 것	26.1(97)	17.0(63)	21.0(78)	8.6(32)	27.2(101)	100(371)

<표-5> 가족내 지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비교적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계
부모이기 때문에 언제나 소중히 대해 준다	2.5(8)	3.5(11)	16.9(53)	29.6(93)	47.5(149)	100(314)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서로 의논을 한다	5.4(17)	12.5(39)	17.3(54)	26.5(83)	38.3(120)	100(313)
나는 아직도 가족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40.7(151)	31.3(116)	11.3(42)	11.6(43)	5.1(19)	100(371)

<표-6> 자녀와의 주관적 관계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계
무엇이든지 마음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3.8(12)	11.1(35)	22.0(69)	30.6(96)	32.5(102)	100(314)
자녀부와 의견차이를 느낄 때가 많다	11.9(37)	30.5(95)	29.6(92)	18.6(58)	9.3(29)	100(311)
자녀부와 동거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4.2(13)	7.8(24)	29.3(90)	34.2(105)	24.4(75)	100(307)
가족의 특별한 날에 자손에게 선물이나 돈을 내놓는다	12.8(40)	18.3(57)	17.3(54)	27.2(85)	24.4(76)	100(312)

e) 子女와의 主觀的인 관계 <表-6>

「무엇이든지 마음 편하게 여기고 있다」와 「자녀 부와 동거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가 그렇지 않을 때 보다 높게 응답하였으나 28% 정도가 子女夫婦와 의견차이를 느낄 때가 많다는 것으로 보아 子女와의 關係에서 世代差異의 갈등을 엿볼 수 있다.

f) 子女와의 客觀的인 關係 <表-7>

父母와 成人子女間에 食事は 얼마나 같이하고 방문, 전화, 편지의 交流는 어느 정도인가 살펴본 결과 子女와 同居하는 경우에는 식사를 같이하고 전화통화도 빈번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老人이 別居하는 경우에는 식사시간을 함께 하기도 어렵고 전화통화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老人의 경우 子女와 別居하는 경우에는 子女와의 빈번한 교류에 의하여 고독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비하여 한국 老人은 己혼자녀와 同居하는 경우에 기타 子女와의 交流가 적고 別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子女와의 交流가 소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背景變因에 따른 老人의 生活滿足度와 生活交流度 <表-8>

① 性別

家庭內의 相互關係중 「家事依存」「활동성」「家族內의 地位」영역에서 男女間에 差異가 나타났다 「家事依存度」와 「家族內의 地位」는 男子가 높고(p<0.01) 活動性은 女子가 높으며(p<0.01) 子女와의 關係는 男女間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情緒的滿足度와 經濟的滿足度を 平均한 전체 만족도는 男子가 3.83 女子가 3.87로 별다른 差異가 나타나지 않았다.

② 宗教

老人의 宗教有無는 經濟的인 滿足度와 子女와의 相互關係에서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나 情緒的인 滿足度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③ 職業

老人의 職業有無는 「經濟的만족도」「家事依存度」「家族內의 地位」「經濟的依存度」등에 차이가 나타났다. 有職老人들이 無職老人들보다 經濟的滿足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職業을 통한 收入이 增

<표-7> 子女와의 객관적인 관계

구분	교류형태	식사	방문	전화	편지
연령	60~69	2.31	2.48	2.74	4.43
	70~79	1.86	2.53	2.80	4.56
	80이상	1.55	2.83	3.12	4.36
	F 값	5.47***	1.42	1.36	0.83
학력	무학	2.09	2.62	2.96	4.65
	초등	2.01	2.42	2.59	4.38
	중등	1.91	2.53	2.70	4.42
	고등	1.79	2.18	2.45***	3.45***
	F 값	0.36	1.46	2.91***	6.29***
동거형태	독신	4.13	2.65	3.39	4.56
	부부	4.38	2.50	3.00	4.17
	기혼자녀	1.50	2.56	2.72	4.53
	F 값	122.79	0.38	3.05***	4.45***
성별	남	2.45	2.45	2.72	4.38
	여	1.86***	2.57	2.82	4.54
	T 값	3.45	1.02	0.78	1.32
종교	있음	2.09	2.58	2.81	4.44
	없음	1.81	2.33	2.69	4.68*
	T 값	1.49	1.88*	0.84	1.79*
직업유무	있음	2.77	2.63	3.07	4.20
	없음	1.87***	2.50	2.73***	4.56***
	T 값	4.48	0.95	2.24	2.64
배우자관계	동거	2.55	2.46	2.76	4.41
	사별	1.74***	2.55	2.80	4.56
	T 값	5.00	0.82	0.29	1.32
주거지역	도시	1.78	2.45	2.66	4.59
	농촌	3.06***	2.78***	3.25***	4.16***
	T 값	6.84	2.67	4.23	3.30
생활능력	있음	2.45	2.45	2.87	4.37
	없음	1.80***	2.56	2.77	4.53
	T 값	3.86	0.90	0.76	1.37

주) * P<0.1 ** P<0.05 *** P<0.01

분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有職老人의 대부분이 一次産業에 종사하거나 보수가 낮은 職種에 취업하기 때문에 經濟的인 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有職老人의 경우 經濟的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나 情緒的으로는 滿足感과 士氣(morale)를 높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④ 配偶者관계

配偶者와 同居하고 있는 老人이 配偶者와 離別하고 홀로 生活하는 老人보다 經濟的만족도는 낮으나 情緒的滿足도는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韓國의 경우에 老人들은 生活費를 대부분 자식에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配偶者의 상실에 의하여 經濟的인 地位가 하락된다고 볼수는 없다. 그러나 「情緒的滿足」과 「家族內地位」에 큰 差異가 나타났다. 이는 老年期로 갈수록 配偶者의 存在는 家族內的 地位를 높여주고 정서적 만족도를 높여 주는 것이되는 것으로 보아 부부해로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⑤ 居住地

都市老人이 農村老人보다 經濟的으로 만족하고 子女와의 交流가 빈번하며 活動的이고 經濟的인 依存度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職業에 의한 居住地 移動으로 女子와 老父母가 별거하는 家口가 都市보다 農村이 많고 농촌老人은 農業生産으로 自立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貧困하고 子息과의 客觀적인 交流度가 낮은 것은 地域的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 思料된다. 더우기 농업생산이 가능하므로 都市老人과 같이 자식의 定期的인 生活費나 용돈의 지원은 전무한 상태이다.

⑥ 生活能力

조사대상 老人의 대다수가 生活能力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生活滿足度에서는 生活能力과 有慧的인 差異가 나타나지 않아 老人에게 生活能力이 있다고 하는 것은 經濟的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所得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生活能力이 있는 老人이 女子와의 主觀的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客觀的인 交流관계도 빈번하지 않으며 家事依存度도 낮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현상은 父母의 所得水準이 대부분 낮은 水準이고 經濟能力이 부족한 그들의 成人子女와는 쌍방이 經濟的인 이유로 인하여 相互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⑦ 學歷

教育을 많이 받았을 경우 經濟的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으나 情緒的滿足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教育을 받은 老人의 욕구수준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가족 환경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주관적인 관계가

<표-8> 배경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생활교류도의 차이

		생활만족도			생활교류도					
		경제적 만족	정서적 만족	전체만족	자녀와의 주관적 관계	자녀와의 객관적 관계	家事 依存度	활동성	가족내에 서의 지위	경제적 의존정도
성별	남자	3.79	3.82	3.83	3.47	3.02	3.19	2.94	4.18	2.80
	여자	3.93	3.78	3.87	3.47	2.94	2.74	3.15	3.84	2.52
	T값	1.56	0.53	0.56	0.03	0.88	*** 4.67	** 2.67	** 2.85	* 1.65
종교	없음	4.01	3.67	3.84	3.45	2.91	2.89	3.37	3.90	2.54
	있음	3.86	3.83	3.85	3.48	2.98	2.87	3.01	3.93	2.61
	T값	1.56	** 2.20	0.26	0.35	0.80	0.19	*** 4.18	-0.27	-0.39
직업	없음	3.95	3.76	3.86	3.45	2.93	2.82	3.09	3.87	2.48
	있음	3.63	3.91	3.81	3.58	3.12	3.14	3.09	4.22	3.18
	T값	** 2.96	* 1.73	0.60	1.03	1.80	*** 2.75	0.00	** -2.53	** -3.65
배우자	동거	3.77	3.95	3.88	3.45	3.04	2.95	3.02	4.07	2.88
	사별	3.94	3.68	3.80	3.46	2.92	2.80	3.15	3.85	2.48
	T값	* 1.88	*** 3.86	1.22	0.16	1.50	1.54	* 1.80	** 2.02	** 2.54
거주지	도시	4.04	3.78	3.91	3.51	2.88	2.83	3.05	3.93	2.45
	농촌	3.31	3.88	3.61	3.25	3.29	3.03	3.24	3.00	3.23
	T값	*** 6.57	1.13	*** 3.41	* 1.73	*** 4.50	* 1.74	** 2.08	0.20	*** -4.25
생활능력	가능	3.58	3.06	2.92	2.97	4.14	2.92	3.99	3.89	3.96
	불가능	3.83	2.91	2.86	3.15	3.83	2.49	3.83	3.73	3.79
	T값	1.64	* 1.79	0.59	2.23	2.79	** 2.57	* 1.71	** 2.14	** 2.31
학력	무학	3.34	3.09	2.89	3.38	3.78	2.75	3.76	3.72	3.76
	초등교육	3.63	2.83	2.78	2.93	4.19	2.54	3.91	3.86	3.88
	중등교육	3.68	2.95	2.86	2.58	4.04	2.42	4.25	3.92	4.11
	고등교육	3.50	2.41	3.31	2.40	4.14	2.68	4.13	3.99	4.04
	F값	*** 4.10	*** 6.03	1.67	*** 36.56	** 2.75	1.21	** 6.18	* 2.23	** 4.68
가족형태	노인단독	3.22	3.63	2.93	3.50	3.83	2.81	3.07	3.51	3.29
	노인부부	3.23	3.43	2.96	2.90	3.90	3.22	3.48	3.91	3.75
	기혼자녀 부부	3.49	2.83	2.87	3.12	3.93	2.49	4.01	3.79	3.91
	미혼자녀	3.31	3.46	2.70	2.93	4.00	2.95	3.73	3.92	3.85
	F값	0.82	*** 19.48	0.43	3.52	0.05	*** 3.35	*** 14.78	1.74	*** 6.81

* P<0.1 ** P<0.05 *** P<0.01

원만하지 않다는 것을 현재의 家族生活에서 役割상
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된다

㉔ 家族形態

經濟的 滿足度는 기혼자녀와 동거시 높게 나타났으
나 통계적으로 有意味하지는 않았다. 情緒的 滿足度
는 기혼자녀와 동거시 가장났고 老人단독형태가 가

장 높게 나타나 기혼 女子와의 同居時 情緒的으로 문
제점이 介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子女부부와
동거시 家事生活面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것보다 도
움을 주는 편이며 活動力은 매우 낮고 經濟的 依存度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9> 생의 기쁨을 느끼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

내 용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순위평균
건강한 삶	110(47.5)	64(27.4)	46(19.7)	10(4.3)	2(0.9)	2(0.9)	1.87
사회활동참여	4(1.7)	5(2.1)	10(4.3)	34(14.5)	81(35.9)	97(41.5)	5.05
취미생활	2(0.9)	13(5.6)	30(12.8)	76(32.5)	91(38.9)	22(9.4)	4.31
자손이 잘 되는 것	82(35.0)	77(32.9)	53(22.6)	19(8.1)	2(0.9)	1(0.4)	2.08
종교활동	11(4.7)	14(6.0)	39(16.7)	70(29.9)	32(13.7)	68(29.1)	4.29
부부해로	25(10.7)	61(26.1)	56(24.4)	25(10.7)	23(9.8)	44(18.4)	3.38

<표-10> 생의 근심이 되는 일

내 용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순위평균
건강불편	98 (41.9)	77 (32.9)	35 (15.9)	13 (5.6)	11 (4.7)	1.98
가족불화	10 (4.3)	21 (9.0)	47 (20.1)	81 (34.6)	75 (32.1)	3.81
경제적 궁핍	17 (7.7)	38 (16.2)	68 (28.6)	57 (24.4)	54 (23.1)	3.39
부모대접 못 받음	13 (5.6)	22 (9.4)	48 (20.5)	64 (27.4)	87 (37.2)	3.81
자녀걱정	96 (41.0)	76 (32.5)	36 (15.4)	19 (8.1)	7 (3.0)	2.00

3. 生活관심에 따른 生活満足度와 生活交流度

① 生活관심 領域의 一般의傾向 <表-9 表-10>

本研究의 全體標本 376명중 생활관심 항목에 대한 응답이 부적절한 것을 제외하고 234명만을 대상으로 分析하였다. 그 結果 老人의 生活관심중 가장 기쁨이 되는것은 건강(1.87), 자손이 잘되는 것(2.06), 부부해로(3.36), 종교활동(4.29), 취미생활(4.31), 사회활동참여(5.05)順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老人들은 家族지향적이라 할 수 있겠다. 가장 근심이 되는 것은 건강불편(1.96), 자녀걱정(2.00)이 거의 同一比率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궁핍(3.39), 부모대접 못받음(3.81), 家庭不和(3.81)順으로 나타나 老人의 生活관심은 經濟的 궁핍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그동안의 조사와는 달리 「健康不便」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수명연장에 의한 健康보호의 必要性이 높아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② 群集分析에 의한 生活關心類型 <表-11>

<表-11>를 통하여 집단별 특징을 보면 集團 I은 子女를 통하여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또한 子女에 대

<표-11> 老人의 生活關心 유형

항 목		총순위 평균	集團 I 평균	集團 II 평균	T 값
기 쁨	건강	(1) 1.87	(2) 2.21	(1) 1.62	*** 4.57
	사회생활	(6) 5.05	(6) 4.64	(6) 5.35	*** 5.16
	취미생활	(5) 4.31	(5) 4.42	(4) 4.24	*** 1.28
	자손	(2) 2.08	(1) 1.86	(2) 2.25	*** 2.96
	종교	(4) 4.29	(3) 3.84	(5) 4.64	*** 4.40
	부부해로	(3) 3.38	(4) 4.08	(3) 2.87	*** 5.93
근 심	건강	(1) 1.98	(2) 2.72	(1) 1.45	*** 10.46
	가족불화	(4) 3.81	(4) 3.72	(5) 3.87	*** 1.03
	경제궁핍	(3) 3.39	(3) 2.97	(3) 3.69	*** 4.69
	부모대접못받음	(4) 3.81	(5) 3.77	(4) 3.84	*** 0.45
	자녀걱정	(2) 2.00	(1) 1.80	(2) 2.13	*** 2.36
표 본 수		234	101	134	—

한 관심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集團 II는 건강이 가장 큰 기쁨항목으로 나타났고 同時에 건강불편이 가장 큰 근심거리라고 응답하였다. 두 集團 모두 社會活動이나 취미활동은 기쁨의 관심영역이 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韓國老人의 社會참여 의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 查證 확인되었다. 근심영역에서는 부모대접 못받는 것과 家庭不和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 최근 父母에 대한 子孫의 태도가 불경스러워졌다고 우려한 바와는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

③ 두 集團間의 生活満足도와 生活交流度の 差異 <表-12>

集團 I은 子孫指向의인 性向이 높고 集團 II는 本人指向의인 性向이 높은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므로 각각 集團 I은 子孫指向의인 集團 集團 II는 本人指向의인 集團이라 하겠다. 이들 두 集團間에는 生活満足도와 生活交流度에서 有意的인 差異가 나타났다. 즉 「經濟的인 満足度」「情緒的인 満足度」「生活에

<표-12> 두 集團간의 생활만족도와 생활교류도와의 차이

변 수	집단 I	집단 II	T 값
경제적 만족도	3.72 <	4.07	3.38***
정서적 만족도	3.65 <	3.82	2.03**
전체 만족도	3.63 <	3.88	3.08***
경제적 의존도	2.44	2.59	0.80
자녀와의 객관적 교류	3.07 >	2.85	2.22**
가사의존도	2.64 <	2.96	2.81***
활 동 성	3.06	3.05	0.11
가족내 지위	3.68 <	3.96	2.26**
자녀와의 주관적 관계	3.27 <	3.55	2.61***

서의 依存」 「家族內地位」 「子女와의 主觀的인 關係」 「子女와의 客觀的인 交流」에 있어서 $p < 0.01$ 내지 $p < 0.05$ 水準에서 의미있는 差異를 보였다. 이는 子孫指向的인 集團은 本人指向的인 集團에 비하여 滿足도가 낮고 子女와의 主觀的인 交流도 적고 家族내 地位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시 말하면 子孫指向的인 集團은 子孫에 대한 기대가 크고 子孫과 心理的으로 독립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모든 生의 보람을 子孫에게 依存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父母의 要求와 期待에 대하여 子孫이 충족시켜주지 못할때 父母는 滿足도가 낮고 父母와 子孫과의 交流度 즉 相互關係가 원활하지 못하며 家族內에서 自己自身에 대한 評價도 否定的인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것으로 미루어 本人指向的인 集團이 子孫指向的인 集團보다 老後生活에 대한 適應이 원활한 것이라고 유추 할 수 있으며 이러한 生活에 대한 關心영역은 老人의 自我概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4. 生活滿足도와 生活交流도와의 相關關係 <表-13>

① 家族內的 地位

老人이 자기자신을 評價하여 認識하는 家族內的 地位는 經濟的 滿足도 ($p < 0.05$) 情緒的 滿足도 ($p < 0.01$)와 相關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老人自身에 대한 評價는 「父母이기 때문에 소중히 대해준다」와 「나는 아직도 家族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에 대한 自己評價에 따라 家族內 地位를 정하였다.

家族內에서 老人自身을 소중히 대해준다고 생각하

<표-13> 생활만족도와 생활교류도의 상관관계

구 분	경제적 만족도	정서적 만족도	전체 만족도
가족내의 지위	0.1696**	0.5939***	0.4051***
자녀와의 주관적 관계	0.3042**	0.6492***	0.4980***
자녀와의 객관적 교류	-0.2647**	-0.3386**	-0.3358**
가사의존도	0.1288*	-0.0601	0.1008
활 동 성	-0.1715**	-0.4026***	-0.2637**

고 自身이 家族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認識하고 있는 老人일수록 滿足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Neugarten(1973)의 生活滿足도 5要素를 충족시키고 성공적인 老化를 맞이한다는 理論과 부합된다.

父母가 成人子女에게 갖는 「孝에 대한 기대감」은 家族관계와 父母自身的 福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父母의 要求가 높으면 세대간의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고 家族의 生活滿足도의 質을 저하시킬 우려가 발생하게된다고 하겠다.

② 子女와의 相互關係

老人은 子女와의 관계가 원만하면 할수록 그리고 子女와의 交流가 많으면 많을수록 經濟的 滿足도와 情緒的 滿足도와의 相關도는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家事領域의 依存이나 원조는 經濟的 滿足도에 는 약한 相關($p < 0.1$)이 있고 情緒的 滿足과는 無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子女와의 相互關係는 정신적으로 원만하고 빈번한 交流여부가 日常生活에서의 家事的원조나 의존상태보다 滿足도에 크게 相關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結果는 Medley(1976) Quinn(1983)등이 子女와의 유대가 老人의 滿足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Mancini(1980)는 老人의 家庭生活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世代間的 依存성과 獨立性, 世代間的 交流, 유대관계, 커뮤니케이션의 내용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같이 老人扶養의 책임이 家族에게 부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父母와 子女間的 關係는 老人들에게 전생애를 통하여 유지되어야 함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③ 活動性

老人의 生活活動을 활발하게 하는가 여부는 經濟的인 滿足도 및 情緒的인 滿足도와 相關도가 높게 나

타났다($p < 0.05$, $p < 0.01$) Hess와 Warling(1978)은 老人에게 있어서 社會的인 관계는 실제적인 지원과 社會的인 滿足을 제공해주며 이러한 社會的 교류망에 참여하는 것은 子女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老年期の 친구는 社會的 손실에 직면해 있는 自身들을 위한 役割 Model로서의 구실을 하며 社會的 교류망이 감소하고 있는 사람들을 결속하게 해준다고 하였다(Rosow, 1974, Hess 1972). 이러한 지적은 韓國老人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하겠다.

父母가 成人子女이외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成人子女에 대한 期待感을 낮출 것이고 父母는 相補的인 友情的 교류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子女에 대한 依存度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V. 結果 및 提言

本 研究은 우리나라 老人의 生活實態를 實証的인 分析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本 研究의 目的은 우리나라 老人들의 生活實態를 調査分析함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老人의 背景變因과 老人의 生活關心영역이 老人의 適應상태(生活 滿足度와 生活交流度)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와같은 研究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실증연구, 사례연구(本稿에서는 紙面관계로 생략하였음)가 병행되었다.

本 研究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첫째, 老人의 生活實態는 高令으로 갈수록 低學歷者가 많고 現職은 82%가 無職이며 前職은 42%가 농축산업이었다. 家族形態는 結婚한 子女와의 同居老人이 76%인데 同居理由로는 「당연하다」와 「子女가 원해서」가 24%가 되었다. 老人들은 子女로 부터 많은 적든 經濟的원조를 받고있으며 80%정도가 老後에도 子女의 扶養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 理由는 老人自身이 「生活能力이 없음」이 66.2%가 되었다. 同居時 不便한점은 子女관계와의 不便함(60%), 무료함(20%)의 順으로 나타났다.

둘째, 老人의 背景變因은 老人의 生活滿足도와 生活交流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性別, 職業別, 居住地別, 學歷別, 生活能力別, 家族形

態別로 영향을 미쳤는데 宗教와 배우자관계는 큰 영향 要因이 되지 않았다.

性別로는 子女는 老後期에 男女보다 活動이 활발하고 家族內의 地位는 男子가 높았으나 子女와의 相互關係에서는 性別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職業別로는 有職老人集團과 無職老人集團간에 差異를 보였는데 經濟的 滿足度는 無職老人이, 情緒的 滿足度는 有職老人集團이 높았다. 居住地別로는 農村老人에 비하여 都市老人이 生活滿足도가 높고 子女와의 交流가 빈번하고 經濟的으로 依存하는 상태라 하겠다. 生活能力別로는 生活滿足度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生活交流度에는 差異가 났다. 즉 生活능력이 있는 경우 生活交流관계는 低下하였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은 경우 經濟的 滿足度는 높게 나타났으나 情緒的 滿足度는 낮았고 生活交流도에 있어서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학력이 높은 老人의 욕구수준을 家族환경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家族形態別로는 기혼자녀와 同居時 經濟的 滿足度는 높으나 情緒的 滿足度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老人의 生活關心중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은 건강함, 子孫이 잘되는 것, 부부해로, 宗教活動, 취미생활, 사회활동 참여등의 順이고 가장 근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건강불편, 자녀걱정, 경제적궁핍, 가정불화, 부모대접 못받음의 順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老人들은 건강한 것과 子孫이 잘되는 것에 가장 높은 관심을 두고있음이 파악되었다. 老人의 生活關心은 Cluster分析에 의하여 두 集團으로 類型化하였다. 集團 I은 子孫指向的인 性向이고 集團 II는 本人指向的인 性向을 갖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두 集團 모두 건강과 子孫에 대한 관심이 集中되고 취미생활이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두 集團間 生活滿足도와 生活交流면에 있어 有意的인 差異가 있었다. 즉 子孫指向的인 集團이 本人지향적인 集團에 비하여 經濟的 滿足도와 情緒的 滿足도가 낮고, 家事的인 도움은 적으며, 家族內의 地位가 낮고, 子女와의 主觀的인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子女와의 客觀的인 交流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本 研究에서는 本人指向的인 集團이 子孫指向的인 集團에 비하여 生活交流도와 生活滿足도

가 높아 老後適應을 잘 하는 것이라 解釋된다. 그러나 經濟的依存도와 活動性에는 두 集團間 差異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국 老人은 대부분 成人子女에게 經濟的으로 依存하고있고 家族指向的인 生活態度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섯째, 生活交流도와 生活滿足도와는 相關關係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즉 生活交流도가 원활할수록 生活滿足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家族내 地位가 높고, 子女와의 主觀的인 관계가 원활하고, 子女와의 客觀的인 交流가 빈번할수록 生活滿足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家事面의 원조와 지원에 있어서는 相關도가 別無하였다.

이상의 研究結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릴수 있다.

첫째, 調査對象老人의 대다수가 經濟的으로 能力이 없고, 子女에게서 同居扶養을 받고 있으면서 子女와의 主觀的인 관계는 비교적 否正的으로 나타나 老人의 問題點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둘째, 背景變因은 老人의 生活滿足도와 生活交流도에 影響 要因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 變因은 老人 스스로 統制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家族들의 老人의 老後適應에 대한 협조태도 여부를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셋째, 老人과 家族과의 生活交流는 대체적으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主觀的인 관계에서는 兩世代의 相互노력이 요망되는 부분이다.

넷째, 老人의 生活關心은 「건강」과 「子孫」에 대한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건강에 관심을 두는 集團은 生活滿足도와 生活交流도가 높은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子孫에게 모든 것을 依存하고 있는 集團은 生活滿足도와 生活交流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結果로 老人자신의 자기조정에 의하여 노후생활의 적응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다섯째, 生活滿足도와 生活交流도와는 相關關係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生活交流도가 원활할수록 生活滿足도가 높다는 것은 老人自身이 스스로 老人問題해결의 關鍵을 부분적으로나마 所持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위와같은 研究結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老人自身이 子女에 대한 依存性에서 탈피하여 心理的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健全한 Personality 形成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子女에 대한 依存性이 크면 클수록 子女世代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그에 충족되지 않을때 父母子女世代는 갈등과 긴장으로 부적응상태에 직면하게 될것이므로 老人自身이 獨立的인 自我概念을 갖도록 자기 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셋째, 地域社會에서는 老人들이 自己啓發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겠다.

넷째, 老人自身이 해결할수 없는 病弱 貧困問題를 社會的인次元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福祉政策을 실시적용하여 그들의 最低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 김태현,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노인복지편람, 서울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5.
- 이남표, 한국노인의심리·사회적적응에 관한연구, 서울 : 아산문화재단, 1979.
- 장인협, 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9.
- 최성재, "노인복지의 주요과제와 그 해결책,"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 1988.
- 최신덕, 김종숙편역, 노인과사회, 서울 : 고시연구사, 1983.
- 한국개발조사연구소,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서울 : 한국개발조사연구소, 1984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1985
- Atchley, R.C., The social Forces in Later Life: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California: Wadworth Publishing Company, 1972.
- Burr, W.R., Leigh, G.D., Day, R.D., & Contantine, J., "Symbolic Interaction and the Family," in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ew York: The Free Press, 1979
- Clark M. and Anderson, B.G., Culture and Aging: An Anthropological study of older Americans Springfield(charles Thomas, 1961). pp. 392-417.
- Graney, M.J., "Happiness and social participiplsn in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No. 6, 1975.
- Hess B.B. and Warling, J.M., "Parent and child in

- life: rethinking the relation ship." In Lerner, R. M. and Spanier, G.B. (eds), *Child Influences and on Marital and Family Interaction*, New York: Academic Press, 1978.
- Hess B.B. "Friendship". in Riley, M.W., Johnson, M. and Foner, A. (eds), *Aging and Society: A Sociology of Age Stratification*, Vol. 3, (New York: Russell Sage, 1972
- Kalish R.A., *Aging Selffound Personality, Late Adulthood Perspective on Human Development*, Calif.: Wordworth Publishing Company, 1975.
- Lawtom M.P. "The Dimensions of morale research planning and action for the Elderly," 1972.
- Lopata, H.Z., "Contributions of Extended Families of the support systems of Metropolitan Area Widows: Limitation of the Modified Kin Net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0, 1978.
- Manicini, J.R., "Strengthening the family life of older adults:muth-conceptions and ivestigative needs," In N. Stinnett, B. Chessen, J. DeFarin, P.Knub (eds), *Family Strengths: Positive Models for Family Life*,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0.
- Medley, M.L.,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of age and over," *Journal of Gerontology*, Vol. 31, No. 4, July 1976
- Neugarton. B.L., *Personality Change in later lif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Eisdarfer. C. and Lanton, P (eds), *The Psychology of Adult Development & Aging*, American Psychological Inc., 1973
- Peck R.C. "Psychological Development in the Second Half of Life," In Newgarton, B.L. (ed), *Middle Age and Aging, A Reader in Social Half of Life*", In Newgarton. B.L. (ed), *Middle Age and Aging, A Reader in Social Psychology* (The Unilersity Chicago Press).
- Riechard C.M. "Economic development and status change of the Ag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7.
- Rosow, I., *Socialization to old Ag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 Quinn, W.H.,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5, No. 1, 1983.
- Shanas, E., *Older People in Three Industrial Societies*, London: Routlege , Kegan Paul, 1968.